서로 다른 분야·세대 예술가 제주에서 '랑데부'

제1회 제주청년예술포럼
이달 5~15일 전시·포럼
국제 교류 콘서트도 열려
"청년 예술 지속 등 모색"


제1회 제주청년예술포럼에 참가해 공연하는 잘츠부르크 챔버 솔로이스츠. 도레미컴퍼니 제공

음악과 미술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분야와 세대의 예술가들이 제주에서 창작과 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한다. 도레미컴퍼니, 갤러리 누보, 제주청년예술포럼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이 지원하는 제1회 제주청년예술포럼(청예포)이다.

'랑데부'(만남)를 주제로 한 청예포는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진다. 공연, 전시, 포럼 등을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청예포 첫날인 5일 오후 7시30분부터는 제주대 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음악, 경계를 넘다'란 제목 아래 개막 공연을 갖는다. 한국·대만·일본 국제 교류 음악회로 제주에서는 제주대 강정은 교수와 박웅 교수, 피아니스트 장지이가 참여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전통을 지닌 연주자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꾸민다.

이달 13일 오후 7시30분에는 제주대 음악관에서 '마스터들의 만남'이 있다. 이 공연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챔버 솔로이스츠가 출연한다. 피아노 협연은 강정은. 제주대 학생들이 지역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경험하기 어려웠던 국제 음악 현장을 직접 접하고 진로 설계와 국제 공연 실무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잘츠부르크 챔버 솔로이스츠는 이달 15일 오후 2시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무대에도 오른다. 이때는 백향민(트럼펫)이 협연을 맡는다.

이달 14일 오전 10시에는 제주대 산학협력관 강당에서 '아티스트 포럼 인 제주'를 진행한다.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문화예술네트워크위드 조용현 대표를 연사로 초청했다.

제주돌문화공원 내 갤러리 누보에서는 5일부터 김용주·전영실·박길주 3인전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청년예술가 포럼도 열린다.

주최 측은 "청년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고 무대에 서는 일만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을 지속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제주에서 시작하는 이 시도가 새로운 작업과 협업, 더 나은 예술 활동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청년예술포럼 공식 누리집(jeaf.doremicom.kr) 참고.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내 최초 피아노 협주곡 복원 초연

제주아트센터 이달 21일
2026 대한민국 작곡제전
김순남 피아노 협주곡 연주
국내 작곡가 창작 음악도

한국 근현대 음악의 선구자로 꼽히는 작곡가 김순남(1917~1986). 그의 음악 세계를 재조명하는 무대가 제주에서 열린다. 제주아트센터가 한국작곡가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2026 대한민국 작곡제전'이다. 이달 21일 오후 7시.

김순남은 가곡 '산유화', '진달래꽃'의 작곡가.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했던 김순남은 초기 한국 현대 음악에서 서양 음악의 작곡 기법에 한국 고유의 음악적 어법을 결합하고자 했던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김순남의 '피아노 협주곡'(1947)이 국내 초연된다. 이 작품은 자신을 아껴 준 미군정 음악고문 헤이모비츠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한국 최초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알려져 있다. 1악장은 완성했으나 2악장은 미완으로 남아 있었다. 이를 후배 작곡가들이 집대성해 완성했다. 박승유가 지휘하는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의 연주와 피아니스트 한지호의 협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곡제전에서는 제주를 비롯해 국내 작곡가들의 창작 음악도 함께 펼친다. 정주희의 '제주, 겹의 풍경', 이강규의 '리-서칭 포 오케스트라(Re-searching for Orchestra)', 이승후의 교향시 '용두암', 이건용의 발레음악 '바리' 중 네 개의 장면('아기함' '새의 춤' '용의 춤' '종곡')을 만날 수 있다.

입장료 5000원. 예매는 제주아트센터 누리집. 진선희기자

창작 뮤지컬 '이어싸 삼도바당' 제주아트센터 이달 28·29일 공연

제주아트센터가 창작 뮤지컬 '이어싸 삼도바당'을 재연한다. 이달 28일 오후 5시, 29일 오후 3시.

'이어싸 삼도바당'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7년 제주 삼도마을을 배경으로 해녀 등 주민들이 매립을 추진하는 '삼도파'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탑동 매립을 소재로 난개발과 도시화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제주다움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복고 감성의 음악과 1987년 시대상을 녹여낸 연출, 안무를 통해 관객들에게 그 시절의 추억과 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원작 한진오, 연출 민경언, 작곡 정유진, 안무 최인숙, 음악감독 김지현. 관람료는 전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예매는 제주아트센터 누리집. 제주아트센터의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로 선보이는 공연.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는 2025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브랜드 기획형'에 선정된 제주아트센터의 공연 예술 브랜드 사업이다.

땅·숲·바람에서 길어 올린 3개의 이야기

갤러리 누보 3인 기획전
김용주·전영실·박길주
자연·생명 보는 세 시선
전시 연계 청년예술가포럼


박길주의 '14대7'(2022). 갤러리 누보 제공

제주의 숲과 바람에서 길어 올린 세 개의 이야기가 전시장에 펼쳐진다. 제1회 제주청년예술포럼 일환으로 제주돌문화공원 내 갤러리 누보에서 열리는 김용주·전영실·박길주의 3인전 '숨: 땅, 숲, 바람'이다.

이 전시는 작품의 완성을 넘어 창작의 과정에 주목하고 서로 다른 예술적 시선이 만나 어떤 변화와 확장을 만들어내는지를 탐색하며 준비했다. 제주라는 섬에서 출발해 저마다 바라본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드로잉, 회화, 설치, 영상 등 각자의 조형 언어로 풀어낸다.

김용주 작가는 어린 시절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숲에서 경험한 서늘한 어둠과 눈부신 빛의 기억을 회화에 담았다. 두려움과 경이로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감각의 장소로서 숲을 마주할 수 있다.

전영실 작가는 마당에 자라난 한 포기의 잡초에서 생명의 존엄과 죽음,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하찮게 여겨지는 잡초이지만 오래도록 지켜보며 애정을 실은 작업을 선보인다.

박길주 작가는 한 장소에 머물며 빛과 바람, 생명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몸에 남아 있는 감각이 어떻게 작업으로 이어지는지에 관심을 둔 작품들이 나온다.

송정희 갤러리누보 대표는 "세 작가와 전시 기획자가 지난 1년여 동안 매달 만나 서로의 작업을 들여다보고, 작업실을 방문하고, 숲을 걸으며 대화와 질문을 이어온 시간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이달 5일부터 12월 20일까지(월요일 휴관). 오프닝은 이달 7일 오후 4시. 갤러리 운영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번 전시와 연계해 이달 11일 오후 3시에는 청년예술가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서는 세 작가와 기획자가 지난 1년간의 공동 기획 과정을 돌아보며 AI 시대 예술 창작의 의미와 지역 예술가들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제주비엔날레 무료 관람 실시

종반에 접어든 제5회 제주비엔날레 전시를 무료로 만날 수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비엔날레 폐막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전시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관람 대상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레미콘이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안내데스크에서 무료 입장권을 받아 관람하면 된다. 제주돌문화공원을 무료로 이용하려면 도립미술관에서 발급받은 입장권이 있어야 한다.

제주비엔날레 폐막일까지 진행하는 무료 관람 기간에는 사진 인증 경품 행사도 벌인다. 전시 관람 사진을 제주비엔날레 공식 SNS 계정에 인증한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립미술관 측은 "이번 무료 관람은 제주비엔날레가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시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제주비엔날레 누리집 참고.

곽은비 작가 다원 예술 전시

제주 출신 청년 예술가가 제주굿에서 마주한 느낌을 다원 예술로 표현한 전시를 펼친다.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제주시 원도심에 들어선 '극장 담장이'(제주시 관덕로 14-2)에서 열리는 곽은비 작가의 '아래에서 보내는 위로'다.

작가는 이 전시에서 소극장 공간을 활용해 제주굿 현장에서 만난 감각과 에너지, 제주 신화 속 세계관을 다양한 매체로 풀어낸다. 굿의 푸다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간 설치, 돌레떡 모양의 독립 출판물을 나누는 관객 참여형 작업, 나선(NASVN)과 협업해 제주굿의 연물 소리를 재해석한 다층적인 소리 작업 등을 선보인다. 실제 굿 현장에서 전해지는 정서를 소극장으로 가져와 지금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자리다.

곽 작가는 "관객은 시각적 감상을 넘어 공간을 직접 거닐고 작품을 만지며 굿판의 온기와 연대의 감각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 관람 가능 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무료.

수상 축 CONGRAT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강 춘 희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그간의 헌신과 노력으로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유공자"**로 공로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한 태 만** 외 **임·직원일동**

합격 축 CONGRATULATIONS
감정평가사



좌 연 재
(제주여고 64회 · 숙명여대 졸업)
부: **좌방은**(前 좌방은성형외과의원) · 모: **고애연**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승진 축 CONGRATULATIONS
부이사관



양 순 철
부 : (故)**양기혁** · 모 : **이성선**
배우자 : **김진희**(한림여중)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합격 축 CONGRATULATIONS
제63회 세무사



김 태 헌
(외조부 : **이원석** · 외조모 : 고복녀)

제63회 세무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한동 외가 일동